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 자기의 주장자 그 자체를 철저히 믿으십시오

믿음이 중요한데...

**문)** 마음공부를 하는 데도 자신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공부한다 하면서도 막상 어떤 큰일에 부딪칠 때는 내가 할 수 있을지 겁부터 먹게 됩니다. 정말 믿는다면 그러지 않았지요?

**답)** 여러분이 좀더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깨닫고 안 깨닫고 그걸 떠나서 자기를 자기가 진실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약초를 캐는 어느 착한 나무꾼이 하나 있었습니다. 흠여머리를 모시기 위해서 약초를 캐면서도 항상 그 어머니를 잊지 못한 채, 나오면 며칠이 걸리니까, 한 달도 걸리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위해서 항상 마음의 기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약초를 캐다가 고만 남떠리에서 굴러 떨어져서 아주 몹시 다쳤습니다. 산골에서 다쳐 가지고 내려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영영 울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어느 대신사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하는 소리가 "너 날기 이전 너의 아버지는 지금 내가 다친 꼴을 보고 울고 있구나. 아버지는 울고 있고 아들은 아파하는구나."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하고 올라가 말고 그렇게 여쭙니 "바로 네가 생기기 이전 너는 지금 울고 있는 그 마음이나. 네 몸이 아파하면 네 마음이 의욕이 없어지는 것도 네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의욕이 없어지느니라. 네가 의욕을 잃지 않는다면 그 아버지도 의욕을 잃지 않느니라. 그것은 왜냐하면 아버지는 더하고 달함이 없기 때문에 너 하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이나."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간 곳이 없어졌으니, 그러자마자 다리가 일어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를 하러 다니는 약초를 캐든, 어떠한 짐승이 있든, 불쌍한 걸 보든 항상 이 창문을 통해서, 이 두 눈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창문을 통해서 아버지가 똑똑히 보시고 이것 좀 살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했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본다고 했습니다. 이 눈은 창문에 지나질 않아요. 눈이 아니에요. 창문에 지나지 않고 그 창문 속에는 진짜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눈이라고 했어요. 그 아버지는 자기의 눈이 눈이 아니고 창문이고, 그 창문 속에는 바로 아버지의 눈이 시퍼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러던 중 어느 날 부랴사라 이 약초를 또 캐러 가다 보니까 뒷에, 이렇게 깊이 흠을 파고선 그 뒷을 놓지 않습니까? 고만 그 풀을 딛고 가다가 고만 산돼지가 그 뒷에 걸렸단 말입니다. 그래 빠졌겠지요? 빠졌는데 이 나무꾼이 가다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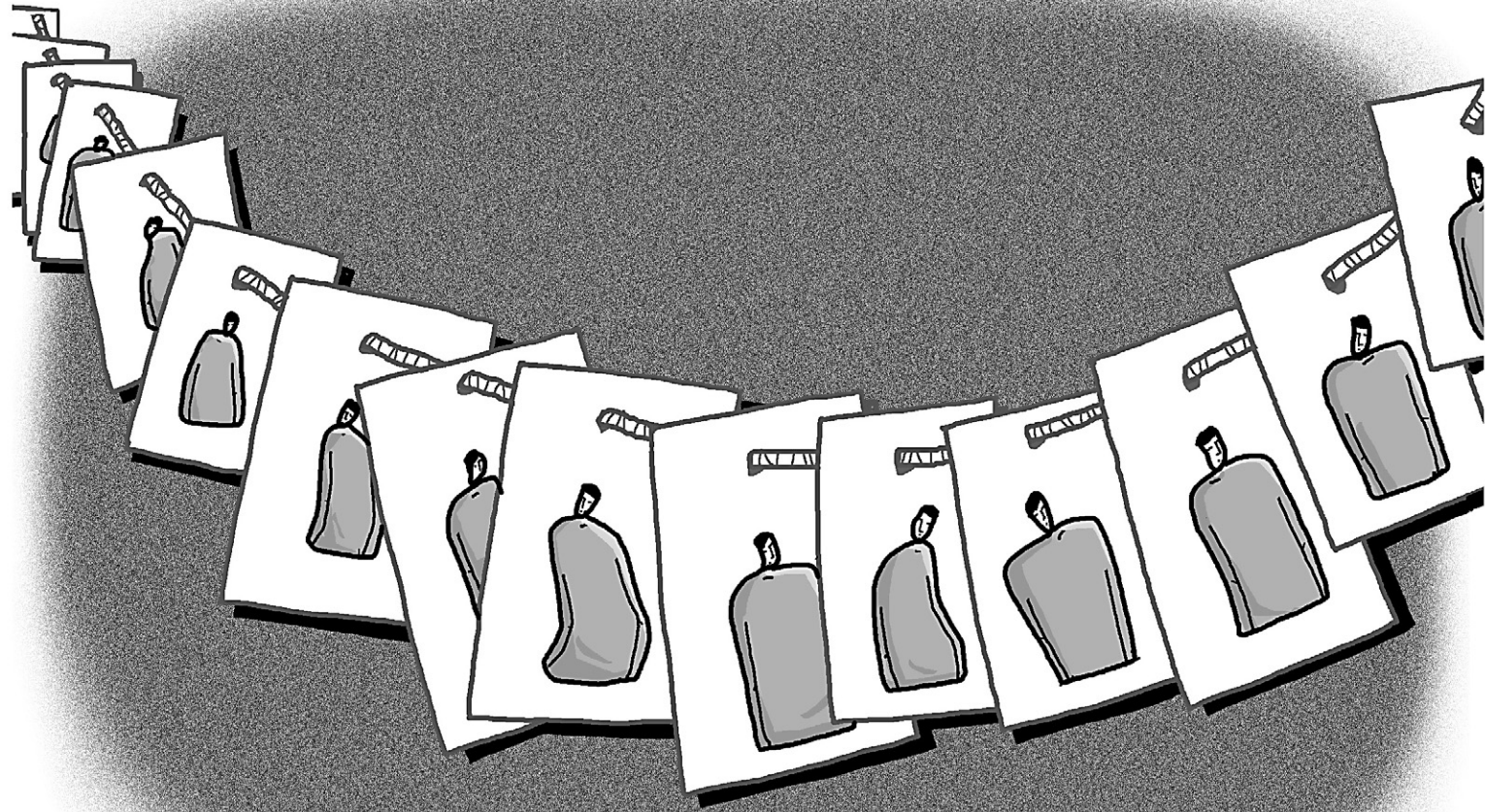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소리가 그걸 보고 "아버지!" 하고 대답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자기가 그런 겁니다. "저 돼지가 뒷에 걸려서 저렇게... 저 생명도 생명이거늘 어찌 그냥 보고 가겠습니까, 보지 못했으면 모르지마는." 하니까 "그럼 네 맘대로 살려 주려무나."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이렇게 자기가 또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선 그 떨어진 나뭇가지 아주 기다란 걸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는 거기에서 그만 그걸 밟고 나왔습니다.

예전의 산돼지는 사람도 잡아먹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산돼지더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를 살려줬거든 앞으로 네 모습을 벗고 사람이 되려면은 사람을 해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돼

지가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돼지는 산에서 으뜰기는 맹수가 됐습니다. 그 사자리는 맹수가 됐는데도 글썽, 돼지는 그때의 그 나무꾼이 잊혀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몸, 모습을 바꿔서 맹수가 됐는데도 그게 잊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나무꾼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몸까지 그 나무꾼에게 바쳤다는 얘깁니다. 그건 뭐냐. 그 나무꾼의 못 잊는 그 마음과 이 맹수의 마음은 항상 둘이 아니어서 고만이 이 모습도 벗으니까 아주 이 세상에서 으뜰기는 대인이 됐다는 얘깁니다. 대인이 돼서 참 어진 정성으로서 많은 중생들을 제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했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몸이 아프거나 또는 어딜 다치거나, 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이런다면 아예, 참 살 의욕이 없어지는 듯합니다. 여러분을 볼 때 참 내 가슴이 아플 때도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만 고치는 게 부처님 법인가?" 이러지마는 그게 아닙니다. 보석이나 뭐나 다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죽게 된다면 아무 의욕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 얼마나 묘한니까? 그러나 자기 몸을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는 겁니까? 아, 몸뚱이가 좀 아프다고 해서 그 마음은 얼마나 의욕이 없어지고 참 그냥 슬프고 눈물이 나고 이러거든요. 아이,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얼마나 자기를 자기가 사랑하냐.

그러나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파하면 서로 같이 아파 주고 울면 같이 울어 주고 의욕이

없어하면 같이 의욕이 없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놓고 자기를 자기가 업신여기고 못 믿어서 저 먼 데 부처님이 계시다 하면은 그냥 '부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 몸 아픈 것 좀 낫게 해주세요.' 하고 발근 합니다. '우리 남편 낫게 해 주십시오. 우리 남편 잘되게 해 주십시오. 자식 잘되게 해 주십시오. 나 몸 좀 안 아프게 해 주십시오.' 하고선 발고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겁니까, 그게?

바로 사랑하는 나에게 내 자부처가, 자신(自神)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놓고, 일체 신이, 바로 한마음에 계신 거를 알면서도 그것을 못 믿고 그렇게 빙빙빙 돌아간다면 앞으로 어떻게 내 몸과 내 국가, 가정 이런 거를, 내 자식을 어떻게 길러 나가면서 어떻게 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까? 네? 지금 현재뿐만 아닙니다. 세세생생에 끝간 데 없이 말입니다. 우리 끝간 데 없이 수억겁 광년이라 할지라도 일 초에 달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마음의 도리를 의심치 말고 믿으십시오. 자기의 자신의 주인공을 믿으면서 거기다가 일체를 다, 들이고 내는 건 다 거기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닫을 때 저 빗장을 쥐지 않는다면 열고 닫을 수 없습니다. 뭐 길게 말한다고 해서 공불 잘하고, 또 짧게 말한다고 해서 공불 못하는 게 아니니 심사숙고하셔서 앞으로 조그만 것, 가정에서나 또는 회사에서도 그렇고 실행을 통해서, 가고 오면서도 그걸 한번 집착하게 생각해서 보실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해서 부적을 받아오긴 했는데

**문)** 요즘 하도 되는 일도 없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얼마 전에 점을 보러 갔다가 부적을 몇 개 받아 왔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 받아오긴 했는데 스님 말씀이 생각나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공부한다 하면서도 너무 힘들 때는 자꾸 마음이 약해지면서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정신 차릴 수 있게 따듯하게 일침을 좀 주게 주십시오.

**답)** 우리가 수없는 역경을 거듭거듭 거쳐 나오면서, 내 몸의 모습을 바꿔 가면서 얼마나 아팠던가. 얼마나 쓰러졌던가. 얼마나 고에 휘둘렸던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 숨을 놓지 못하고, 그 노비 문서를 놓지 못하고, 그 종문서를 쥐고 다니는 이러한 여러분의 그 답답함을 나는 도대체 알 길이 없습니다.

30면으로 계속

##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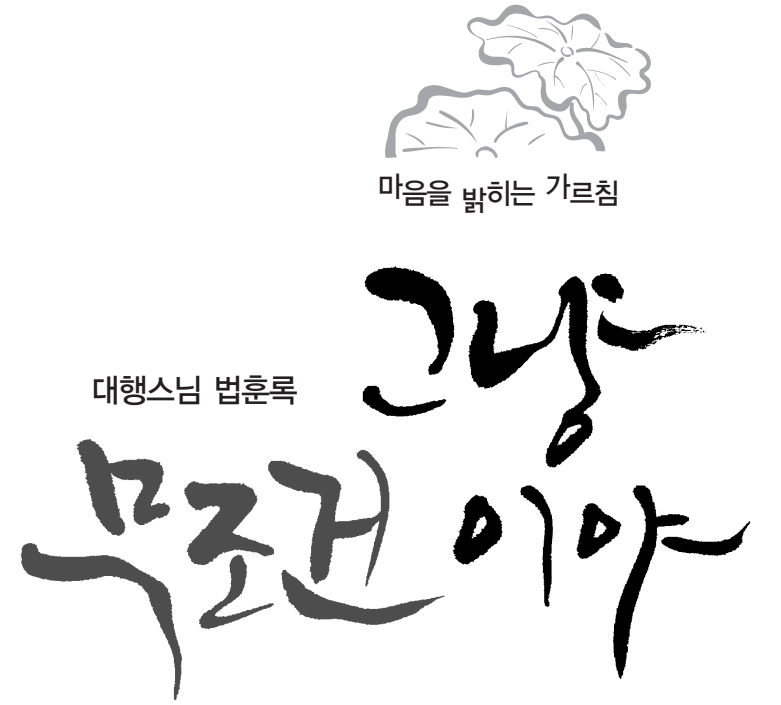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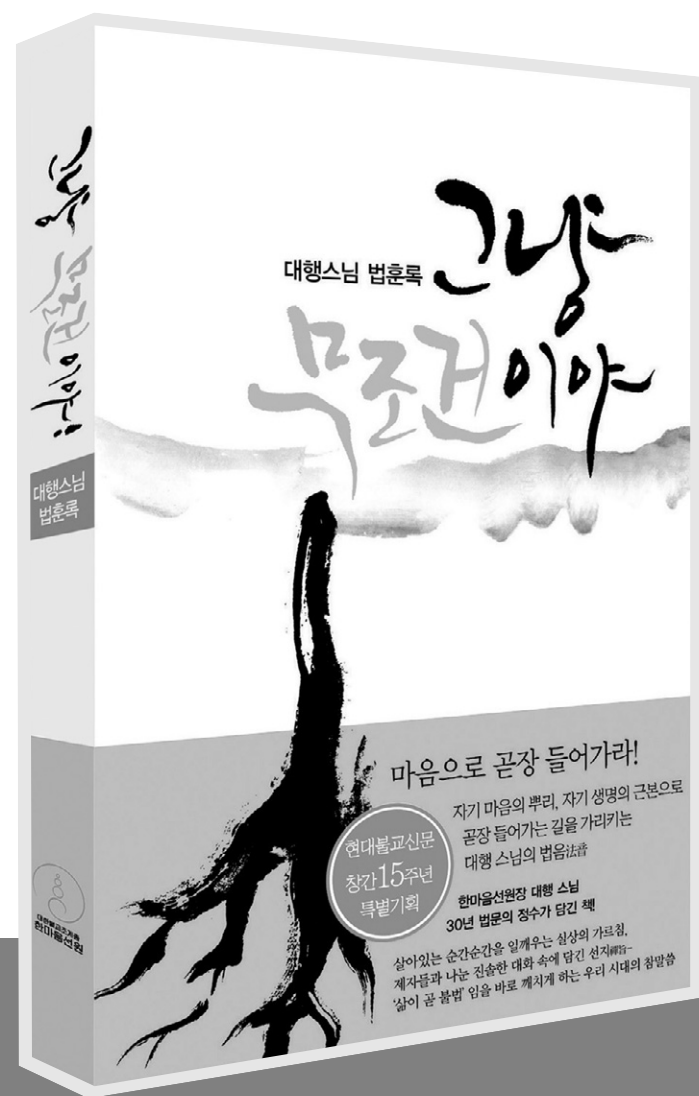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현대불교신문 창간 15주년 특별기획  
한마음선원장 대행스님 30년 법문의 정수가 담긴 책

살아있는 순간순간을 일깨우는 현상파 거장님.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禪旨).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 지혜로운 마음으로 주인공에 모든 것 놓아야

29면에서 계속

여러분도 나처럼 눈 달리고 코 달리고 예전 부처님들도, 역대 조사들도 다 눈 달리고 코 달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 절 저 절 다니면서 이 부처 저 부처, 용왕이 날 돌봐 준다 해서 방생한다고 고기 잡으러 가지고 다니는 거. 밤 내려 가지고 물에 넣는 거. 이게 뭐니까? 도대체 이게 뭘 뜻하고 광대무변한 한 인간으로서 자유인이 되지 못하고 항상 노예로서 거지, 또는 귀신, 이런 것들만 하고 다니니 이게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똑똑한 사람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을 기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 앞에 좋은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물건을 쓸 줄 모르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을 다 주고 바꿀 수 있는 보물이, 보배가 앞에 있다 하더라도 쓸 줄 모르면 그건 허탕이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보배를 가지고도 당신네들이 쓰지 못하는 관계상, 그 보물이 쓸모 없이 뒀단 말입니다. 모두.

우리가 사는 게 모두 힘이 있으면 뿔아당겨서 자기 거를 만들고 힘이 없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좀 노릇을 하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우주의 섭류도 역시, 힘이 있으면 탁 처선 그냥 버리거나 짝 뿔아 들어서 자기 걸 만들거나, 이런 문제들이 술하게 많으니까요. 지금 이 지구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도 다 같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도 마음들을 그렇게 쓰니 어찌 뻗이지 않고 살겠습니까. 무덤한테 마음을 뻗고 살지 않나, 부처한테 뻗고 살지 않나, 장승한테 뻗고 살지 않나. 남이 용왕이 있다니까 용왕한테 뻗고 살지 않나. 이름에게, 전부 이름을 해 놓고는 그 이름한테 전부 뻗고 살아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내 정신 내가 가지고 사는 거지, 왜 자꾸 정신들을 뻗고 사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랬대요. 부적을 해다가 베게에다 넣고 얼굴 장을 사야 그 달에 뭐 괜찮다고 그래 가지고선 그걸 다 사다가 여기도 놓고 저기도 놓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선원월 오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며칠 다니면서 살법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밤 꿈에 스님이 오셨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 저기 감춰 놓은 거 좀 내다 봐라.” 그러더라고요. “감춰 놓은 게 없습니다.” 하니까 “이것도 없어? 여기에 매달려서 너희가 잘되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 베게에 있는 거, 뭐 있는 거 다 내놓으라 그래서 다 몰아서 놓는데 벌써 그냥 확 불이 붙어 가지곤 그냥 흔적도 없더라고요. “그런 꿈을 꿴습니다. 이게 무슨 꿈입니까? 이거 해로운 꿈 아닙니까?” “아휴, 저러니 할 수 없지. 마음 쓰는 게 저렇게 가난하니 어찌 살기가 가난치 않을까?” 이런 말을 했지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말을 해 놓고선 또 ‘예, 저 모습 이 내 모습이요, 저것이 바로 나인데.’ 하고선 잘 다독겨서 “그게 아니라 그릇이 다 타버렸으니

얼마나 좋아. 모든 것을 주인에게 맡기고 살면 편 안치 않아?” 이렇게 처음부터 달래 가지고 나가야 지 별수 없거든요. 그놈의 거, 그 숨을 다 떼어 버리려면.

모든 게 여러분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이게 마음이 얼마나 기묘하고 광대무변한지 여러분이 체험을 안 해 보셔서 그렇지 체험을 해 보세요. 여직껏 나를 끌고 다니는 거, 오늘도 부지런히 육신을 놀려서 밥해 먹고, 빨래하게 하고, 똥 놀 사람은 똥 누게 하고, 길을 걷게 하는 그 장본인이 누구니까. 바로 여러분의 성품에 의해서. 따라서 환경을 자기가 조성해 나가고 화합을 시키고 조화를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이지, 딴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고, 이거는 영 안되니, 이놈의 걸 노

기의 주장자, 자기의 주인공, 그 자체를 철저히 미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물러서지 않도록 하세요.

### 자식만큼은 뜻대로 안됩니다

문) 제가 욕심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자식만큼은 참 뜻대로 따라주지 않으니 괴롭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이끌어갈지 모르겠습니다.

답)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가정에서 어떠한 불화가 일어나도, 어떠한 속이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다. 어느 분이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재밌게 애들 낳고 잘 살았는데 여자 열여섯이 나가서 영 돌아온 쉼 안 합니다. 그래서 돈도 다 까불리지 아주 그냥 매기단을 찹니다. 그래서 “야, 주인공에 맡겨 버리고 가만 뒤라. 저 하고 싶은 대로 이 줄을 늦춰

이것이 바로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 주인공 줄에다가 모든 것을 놓게 되면 아무리 나쁜 사람도 참 착해지게 돼요. 그리고 사랑을 받게 되고요. 아무리 아들이 나쁘고 도둑질을 하고 그래도 전자의 인연줄로 인해서 그런 거니까 그 인연줄을 놓어 주기 위해서는 그저 줄만 딱 쥐고선 다 그냥 놔두면, 그렇게 믿고 놔두면은 그냥 저절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걸 붙들고 바들바들 뛰니까 가 보질 못하는 거죠. 좀 느긋하게 두면 그냥 갔다가 한번 휘돌아서 ‘야, 이런 게 이런 거로구나.’ 그리고선 아예 그냥 실증이 난다구요. 그럴 때 줄을 딱 잡아 제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하고 싶어서 ‘내가 이걸 꼭 봐야지.’ 하고 할 때에 이걸 딱 막으면 그건 부작용이 나는 겁니다. 해 보고 싶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뜻을 판단하고 그 뜻을 따르라는 거지, 그 뜻을 따르지 않고 만날 물질로만, 색으로만 좇아다니다가 보이면은 그 부처님의 뜻을 하나도 알지 못해요. 뭐, 이 스님은 만날 무슨 한 말 되라고 한 말 되라고 한다 하더라도 천 번을 하더라도 잘 새겨들어 보십시오. 그러다보면 거기에서 바로, 그 진흙, 더러운 그 물에서 아주 예쁜 연꽃이라는 그 향기 내음이 거기서 나오게 되고, 열쇠도 거기서 나오게 되고, 온 누리에 자기가, 참자가 꼭 차 있을 수 있고, 자기의 사리가 온 누리 우주에 팽찰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 부처님은 왜 아프셨던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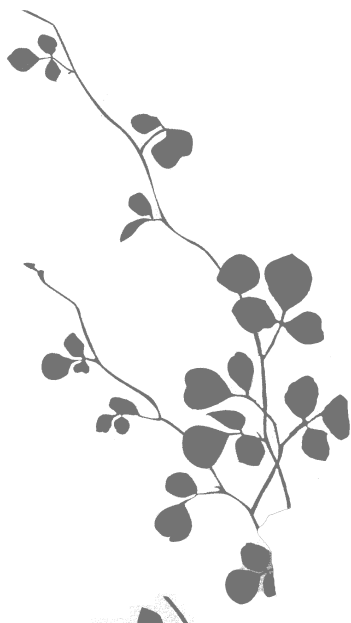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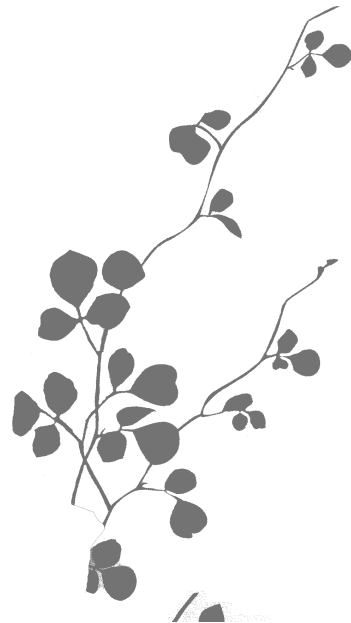
문) 우매한 질문이겠지만, 저희 같은 중생들이야 벗어날 수 없는 일이라지만 아님, 깨달으신 부처님께서 왜 아프셨던 것이지요?

답) 부처님께서 잠시 모든 것을 이렇게 ‘이 육신은 바로 내 주인의 거고 내 주인의 사자고, 내 주인으로 하여금 형성됐으니까 주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모든 일체 만물이 다 이렇게 변질되고 바뀌고 이라는 것이니라.’ 하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방편을 잠깐씩 이렇게 쓰셨던 것입니다. 그건 방편으로 쓰신 거지 자기가 아프서 그런 건 아니라고 겁니다.

여러분도 몇 년씩 아프다가 그 고통을 받고 만약에 옷을 벗는다면 그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평화롭고 티끌 하나 묻지 않게, 발란하고 생동력 있게, 삶을 보람 있게 그렇게 살면서도 후딱 옷 벗어 버리려면 잠시 잠깐 좀, 그것도 아프지 않게 아팠더라면 상대방들도 고통을 받게 하지 않고 나도 고통받지 않고, 그건 양념으로, 이렇게 진리가 이러하다 하는 것만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처님 법은 그대로 우리가 아픈 것도 법 안 아픈 것도 법, 죽는 것도 법 사는 것도 법이라고 해서 ‘이것이 진리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거에서 깊숙하게 자기 주관을 세워서 지혜가 넓은 사람들은 좀 유유하게 살아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주 마음이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남한테 항상 이렇게 밟히고 또는 거절당하고 또 화목하지 못하게 되고 또 상대방하고도 내가 거리가 생기고, 이렇게 함으로써 적당하게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의해서 자꾸 싸움이 생기고 가정 파탄이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원인이 바로 자기예요, 누구의 탓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할, 공부하기보다는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아,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것쯤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살아가면서도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서 어떻게 묘한 법이 나와서 내가 움추려지고 있는지 그거를 모르면 내 몸 하나 이끌고 가지고 갈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것쯤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살아가면서도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서 이렇게 묘한 법이 나와서 내가 움추려지고 있는지  
그거를 모른다면  
내 몸 하나 이끌어가지도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뭣을 어떡하나 하고 안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안 되는 거고, 된다고 생각을 하니 되는 거고 내가 새 달에 무덤이 나쁘게 된다니까는 그냥 나쁜 줄 알고 쪼쪼 매는데, 내 주인, 이 주장자의 주인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를 듣고 말리는 겁니다. 오하려 귀신한테 말리는 거죠. 내가 귀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이사 갈 때 되면 가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떡 해 먹고 싶으면 떡 해 먹고 이라는 거지 아이, 누구에 의해서 해요? 지금 안 그래도 살기가 고달픈데 아니, 여기에 고달리고 자기에 고달리고, 어떻게 편안하게 살 때를 바랍니다.

일심에서 일체 만법이 나오고, 일체 만법이 일심으로 드는 것인데 이걸 무시하고서 방황하니까 모든 문제가 들어지는 겁니다. ‘응, 내가 그렇게 나를 믿지 않고 그렇게 돌아치니까 너 좀 돌아봐라.’ 그러자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직껏 자기가 자기를 끌고 나오는 자기 주인의 그 공도 모르니 어떡합니까, 그거?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고 철저히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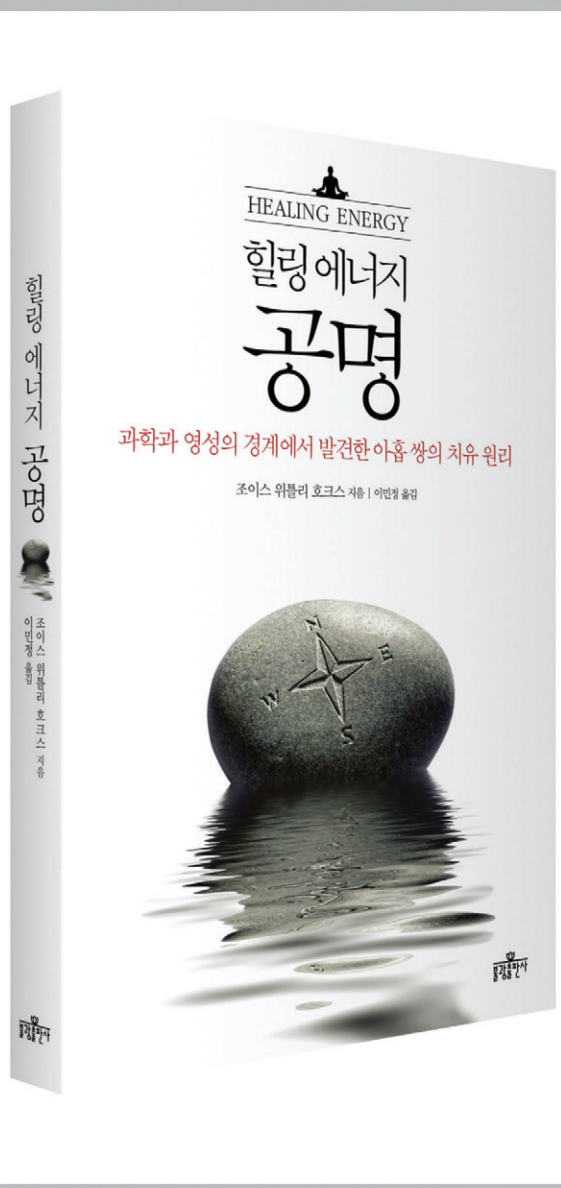
주라, 늦춰 줘, 가는 대로 늦춰 줘라. 이 마음과 마음의 줄은 남편이라는 거하고 아내라는 거하고 줄이 있다. 이 줄을 그냥 늦춰 줘라. 그리고 자비로서 그냥 놔둬라. 주인공에 맡기고 놔둬, 그냥.” 그랬더니 한참 가다가, 이 줄을 쥐고 있으니까, 근본에 같이 가실이 돼 있으니까, 돌아다니다 돌아다니다 나중에는 실증이 났어요, 고만. 고생만 되고 이게 그냥 버린 것도 아깝고 실증이 나 버리니까 슬슬 그 줄이 안제 그냥 늦춰진단 말입니다. 돌아오느라고.

그러니까 돌아오는 대로 줄이 느슨하게 되니까 그냥 고것만 느슨한 대로만 잡아당기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집으로 속 들어왔는데 바짝 쥐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사랑하거든요. 가서 경험을 하고 보니까 ‘야, 이렇더라. 세상에, 손이 들어 굽지 내굽지 않더라. 세상에 다니면서 봐도 너 같은 아 내가 없고, 너같이 예쁜 아내가 없고, 마음씨 그렇게 착한 아내가 없더라.’ 이라고서는 그냥 전자에 없던 애정도 솟아나오는 거예요.

은데 해 보질 못하게 딱 쥐고서는 늘어나니까 그냥 신경질을 내고 그냥 온통 야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탁 던져요.

세 살 먹은 어린이나 네 살 먹은 어린이나, 또는 두 살 먹은 어린이, 한 살 먹은 어린이를 만약에 잘 못한다고, 이거 울고 뭐 그런다고 자꾸 때려 보십시오. 그럼 더 울겁니다. 그럼 저만 손해조, 어른만 손해요. 애가 뺨하고 그러면 더 손해잡아요. 그런데 죄가 있다면 모르는 죄뿐이지,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바로 죄가 있다면 모르는 죄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우리가 모르니까 어린이로 생각하고 그 어린이를 때리면 될 하나 했습니까. 때리면 더 울거나 하지, 이걸 잘 고이 새겨들으십시오. 그러니까는 아무 데서나 모른다고, 믿다고 또 그리고 아무 데서나 때리지 않았습니까. 때리지 않고 항상 과거의 자기가 어린이로 돼 있었을 때에 자기가는 결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비하시고 얼마나 도량이 크십니까.



## 과학과 영성의 경계에서 발견한 치유 원리 그 생명력의 비밀, 공명



### 물리적 영역과 영적 영역의 조화와 공명 몸과 마음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치유 원리와 그 적용 사례

과학자이자 전문 치유사인 조이스 호크스 박사는 물리적 영역과 영적 영역 간의 조화를 통해 두 영역의 에너지가 서로 공명하여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지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명상과 실천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룬 강력하고 다양한 수행법과 더불어 현대 의학도 놀란 극적인 실제 치유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완벽한 처방전이 될 것이며, 우리가 내면의 공명을 찾아 깨어 있는 의식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행복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한다.

조이스 위클리 호크스 지음 / 이민정 옮김  
288면 / 15,000원

## “잘 나가는 100대 기업은 다 이걸 한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친구가 되자



**출간 즉시** 교보문고 에스24 일간진 인터넷 인문분야 베스트셀러

**존 카밧진의 처음 만나는 마음챙김 명상**

● 영상 유도 CD(75분) 포함  
존 카밧진 지음 / 안희영 옮김  
240면 / 15,000원

**언론이 주목한 존 카밧진과** 우리에게 고통과 친구가 되라고 이야기한다. - 조선일보

**처음 만나는 마음챙김 명상** 한마디로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서 현재에 집중할 때 솟아나는 자각이 주목된다. - 중앙일보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더 지혜롭고 자비롭게 살 수 있다. 또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 경향신문

인간의 고통은 자신이 누구인지 온전히 모르는 데서 오는 것인데, 마음챙김은 그것을 아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 한국일보